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구취관련요인

이가령

울산과학대학 치위생과

색 인 : 구취, 오랄크로마, 휘발성황화합물

1. 연구주제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평균적 구취정도와 구강내 원인 및 구강외 원인을 파악하여 그들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목적

구취란 구강이나 비강, 상기도 소화기 상부에서 유래하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냄새를 일컫는다. 전 인구의 50~65%가 구취로 인해 고민하거나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 된 바가 있을 정도로 구취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취에는 그 발생원인에 따라 구강내 원인과 구강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강내 원인이 85~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구강외 원인도 무시할 수는 없다. 우선 구강내 원인으로 인한 구취는 타액과 치아사이에 남아있는 음식물들에 포함된 단백질과 단백질 분해산물인 아미노산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 될 때 발생하는 휘발성 황화합물 (volatile sulfide compound, VSC)이며, 주로 혀에 존재하는 세균들이 구취의 주된 기여요인으로 생각된다.

구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자의 감각수용기에 의존하는 관능적 검사와 Halimeter나 Oralchroma를 이용하는 객관적인 진단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Oralchroma를 이용하여 구취를 측정하고, 구취의 구강내 원인과 구강외 원인 등 각 요인별로 구취유병율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취제거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울산 소재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편의 추출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6년 4월 17일 강의시간 종료 후 구취를 측정하였고, 총 12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에 의해 응답하게 한 후 총 125부를 회수하였다.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한 121부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2. 연구방법

3.2.1. 설문조사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설태유무,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복용약물, 자극성식품 선호여부, 혀솔질 빈도 등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2.2. 타액분비율, 타액점조도 측정, 구취측정

4. 연구성적

표 1. 조사대상자의 구취 유병자율

	조사대상자(명)	백분율(%)
구취 비 유병자	85	70.2
구취 유병자	36	29.8
합계	121	100.0

표 2. 조사대상자의 구취관련요인과 구취유병자율

요인구분		구취유병유무		P
		무	유	
치아우식증	없다	54(75.0)	18(25.0)	.871
	있다	25(73.5)	9(26.5)	
치주질환	없다	70(74.5)	24(25.5)	.968
	있다	9(75.0)	3(25.0)	
설태	없다	48(66.7)	24(33.3)	.007
	있다	31(91.2)	3(8.8)	
호흡기질환	없다	67(73.6)	24(26.4)	.600
	있다	12(80.0)	3(20.0)	
소화기질환	없다	61(74.4)	21(25.6)	.952
	있다	18(75.0)	6(25.0)	
복용약물	없다	73(75.3)	24(24.7)	.571
	있다	6(66.7)	3(33.3)	

자극성식품선호	아니다	25(58.1)	18(41.9)	.016
	그렇다	57(79.2)	15(20.8)	
혓솔질 빈도	가끔	6(33.3)	12(66.7)	.001
	하루에 한두번	12(80.0)	3(20.0)	
	이 닭을때마다	64(78.0)	18(22.0)	

표 3. 구취유병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odds ratio
치아우식	-.482	.728	.439	.508	.617
치주질환	-.031	1.004	.001	.976	.970
설태	-1.657	.849	3.804	.051	.191
호흡기	-.287	.840	.117	.732	.751
소화기	-.439	.790	.309	.578	.644
복용약물	2.321	1.011	5.268	.022	10.186
자극성음식	-2.660	.789	11.353	.001	.070
혓솔질(1~2회)	-22.369	10092.846	.000	.998	.000
혓솔질 (잇솔질할때마다)	-2.219	.808	7.543	.006	.109
예측력			74.5		

4. 결론

- 1) 조사대상자 중 구취 유병자율은 29.8%로 나타났다.
- 2) 설태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의 66.7%가 구취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이 닭을때마다 혓솔질을 한다는 학생의 78.0%가 구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3) 구취 유병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설태, 복용약물, 자극성음식, 혓솔질이 었다.